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52호 【루계 제2573호】

주체108(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음력 11월 25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서거 8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인 김재룡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들이 끝없이 달려오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시여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시며 주체혁명의 계승완성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성스러운 한생이 빛나는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존엄높은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강대한 힘을 세계만방에 떨치시며 이 땅우에 자력부흥, 자력번영의 장엄한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부국강병을 위하여 쌓으신 불멸의 업적

평화로운 환경에서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고 념원이다. 허나 이것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오직 강위력한 보검, 그것을 마련해줄수 있는 탁월한 령장을 모실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지나온 공화국의 력사는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위대한 령장을 모시는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한쪽에는 강대한 군력을 가지고있는 〈초대국〉, 세계헌병이 서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나라가 그 거대한 괴물과 마주서서 1:1로 대담하게 대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인간의 강의성이 검증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김정일**령도자의 마음속에는 단 한점의 공포나 우려도 없다. 그분은 바위처럼 굳센 강철의 의지와 정신을 지니신 위인이시다.》

이미 오래전에 한 외국인이 한 말이다.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제재와 봉쇄, 군사적압살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 운명,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자기의 의지대로 국가건설을 힘차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탁월한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신 백전백승의 령장이시다.

순경은 영웅을 감추고 역경은 영웅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다.

그이께서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나라의 정사를 돌보신 나날은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최악의 역경이 겹쌓인 나날들이였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랭전이 종식된것을 기화로 더욱 악랄해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공세로 하여 공화국의 앞길에는 이루 다 형언할수 없는 난관이 겹쌓였다.

바로 그러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나라를 굳건히 지키시면서 이 땅우에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후날 그이께서는 숨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는 자신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난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회고하시였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그이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길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군력강화의 길이였다.

초도와 판문점, 철령과 오성산, 지혜산, 1211고지, 대덕산…

그이의 애국헌신과 로고를 전하여주는 쪽잠과 줴기밥에 대한 일화며 얼어든 발을 찬물에 녹이시였다는 이야기, 색낡은 야전솜옷에 깃든 만단사연은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울려주고있다.

숭고한 애국애민의 뜻과 초인간적인 의지로 전선에서 전선에로 종횡무진하시며 군인들에게 조국수호의지가 비낀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기념으로 수여해주시고 백승의 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안겨주신 장군님이시다.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던 시기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신것은 그이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형편에서 누가 우리에게 대포와 비행기 같은것을 가져다줄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군수공업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지킬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방공업발전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군사는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며 국방공업은 부강조국건설의 생명선이라고, 우리 나라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라고 하시면서 군수공장들을 련이어 찾으시고 나라의 실정에 맞는 성능높은 무기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국방과학과 군수공업발전에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넘볼수 없는 강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다 갖춘 무적강군으로 장성강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선군령도의 길에서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로서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강국건설의 제일기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일본새가 온 사회에 차넘쳐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드높은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의 생산과 같은 대경사도, 나라의 모습을 몰라보게 변모시킨 대계도의 기적도, 련하기계와 더불어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안아온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도 위대한 선군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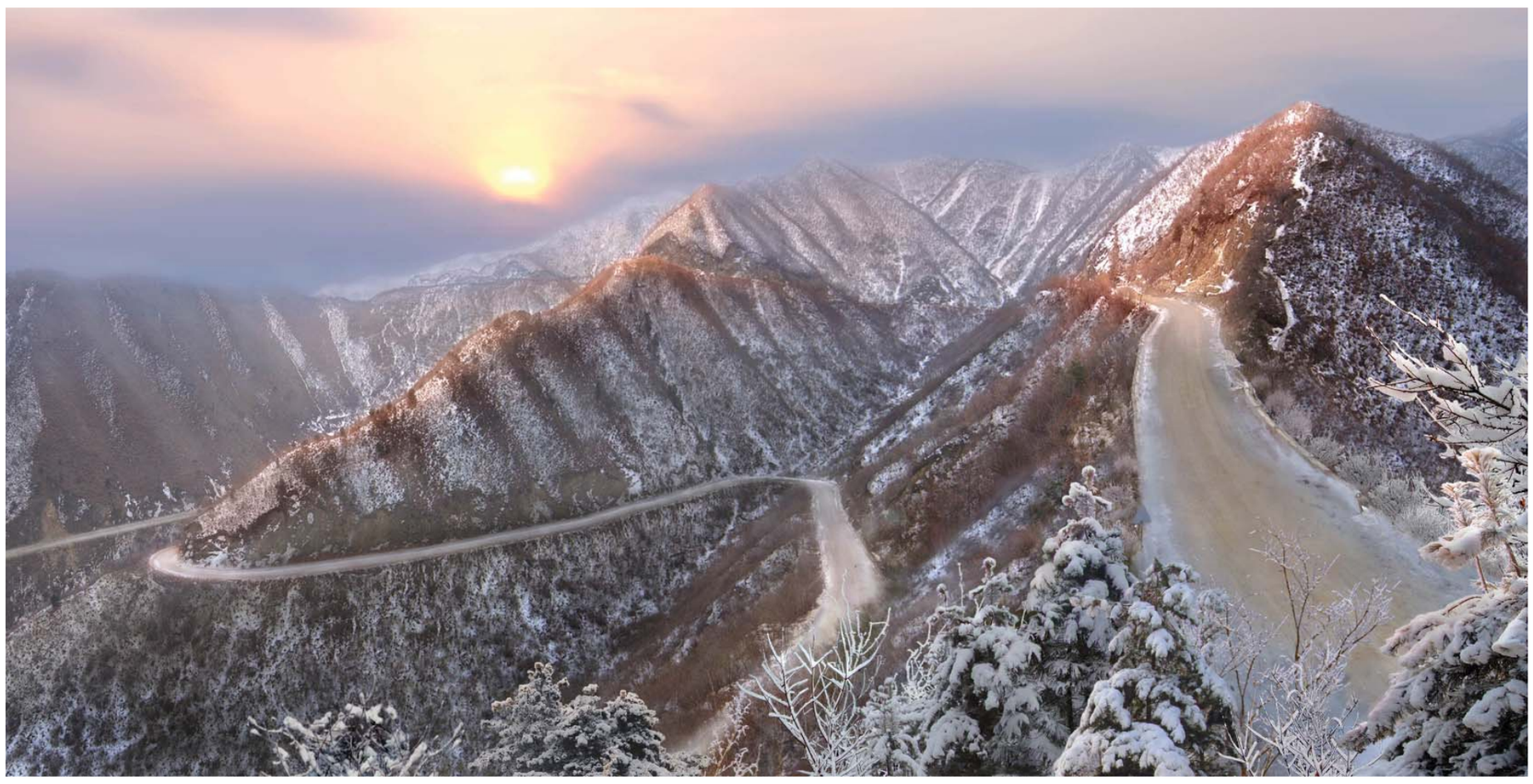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이 있기에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의 오늘이 있고 자립, 자력으로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가 펼쳐질수 있은것이다.

지금 공화국인민은 총대가 약한탓에 제국주의렬강들의 강권과 침략책동의 희생물이 된 여러 나라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위업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의 군력은 더욱 강화되고 필승의 기상과 존엄을 높이 떨치고있다.

공화국의 인민은 대를 이어 위대한 령장을 모신 민족의 행운과 긍지를 12월 24일과 더불어 더욱 가슴깊이 절감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절세위인의 선군령도사를 전하는 철령

빛나는 계승의 길

조종의 산 백두산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고귀한 투쟁업적, 항일선렬들의 애국의 넋이 력력히 깃들어있다.

지난 12월초 백두산밀영을 비롯한 항일의 전적지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투쟁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고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말씀을 하시였다.

청봉숙영지를 찾으시고 모닥불가에서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이의 모습은 항일의 나날 빨찌산대장이시였던 위대한 수령님 모습 그대로였다.

모닥불은 열을 낸다.

하지만 항일의 나날 그 불더미는 빨찌산대원들의 온몸을 녹여주지는 못하였다. 설령 모닥불이 뜨겁다 한다한들 뼈와 살을 에이는 백두광야의 그 혹한에 비하면 그 연소의 세기는 보잘것없는것이였다.

그러나 모닥불은 항일유격대원들의 마음을 덥혀주고 심장을 끓게 하였다.

마음이 후더우면 추운 겨울도 따뜻한 봄처럼 느껴진다.

모닥불은 열혈투사들의 마음을 만난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끓게 하였다.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의지를 벼려주었다.

심장을 더욱 맥동치게 하는 신념의 불, 투쟁의 불이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와 행군의 쉴참에 모닥불가에서 일제격멸의 작전을 구상하시고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군 하시였다.

숙영지의 모닥불가에서 빨찌산대원들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북돋아주시였었다.

모닥불가에 앉아 고향생각을 하면 마음은 사랑으로 달아오르고 전투적사기나 용맹이 백배하여지군 하였다.

그 불길이 조선민족에게 광명의 신심을 안겨주고 일제에게는 간담을 서늘케 한 보천보의 홰불로 타올랐다. 무산지구전투와 조국해방작전을 비롯한 항일의 전구들마다에서 삼단같은 멸적의 불, 승리의 불길로 이어지였다.

지금도 백두산지구의 전적지들에서 볼수 있는 모닥불피운 자리는 간고하였던 항일대전의 만단사연을 그대로 전하여주고있다.

설한풍 몰아치는 백두광야에서 지펴진 모닥불은 세월은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꺼지지 않는 불이다.

항일의 나날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백두의 슬기와 애국의 큰뜻을 품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을 남달리 사랑하시였고 백두의 기상으로 애국위업을 줄기차게 이끄시였다.

그이의 령도는 항일의 넋이 어린 야전식, 빨찌산식이였고 그이께서는 모닥불을 사랑하시였다.

언제인가 있은 일이다.

량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시며 여러 농장을 돌아보시였을 때는 어느덧 점심시간무렵이였다.

장군님께서는 한 농장의 감자밭머리에서 일군들에게 감자굽는 방법도 알려주시며 그들과 함께 모닥불에 구운 몇알의 감자와 한고뿌의 물로 끼니를 에우시였다.

긴장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때로는 쪽잠으로 휴식을 대신하기도 하시고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실 때도 있으신 그이께서 그날에도 야전식으로, 빨찌산식으로 검소한 식사를 드시였던것이다.

야전식강행군, 빨찌산식강행군으로 나라의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국사를 돌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도 나는 모닥불을 좋아한다고, 혁명의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한것만큼 혁명가들이 모닥불을 싫어하여서는 안된다고, 모닥불가에 앉으면 자연히 빨찌산의 모닥불이 떠오른다고 하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의 투쟁사가 어리여있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만단사연을 전하는 모닥불.

모닥불을 생각하면 땅을 구들로 삼고 하늘을 천정으로 삼고 사는데 습관되였다고 하시며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으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안겨오고 수령님식으로 모진 고난과 시련을 맞받아헤치시며 나라와 인민의 존엄을 수호하고 강성번영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른다.

나라의 존엄과 번영을 위하여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백두의 행군길, 빨찌산식행군길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백두전구에 어제도 오늘도 타오른 모닥불에는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안아오는 위대한 령장, 절세의 애국자의 애국의 신념과 필승의 의지가 용암마냥 끓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신 12월의 백두행군길에서 세월을 넘어 꿋꿋이 이어지는 민족자주위업의 빛나는 계승을 본다.

본사기자 리설

고결한 인정의 세계를 추억하여

수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밀물처럼 차오르는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나는 어머님께서 우리 일가친척들에게 돌려주신 고결한 사랑을 다시금 세상에 전하고싶어 추억의 붓을 들었다.

백발백중의 명사수, 능숙한 지하정치공작원, 탁월한 녀성혁명활동가로 명망높으신 김정숙어머님은 덕망에서도 특유의 인정미와 사려깊은 사랑을 지닌분이시였다.

세월이 가고 흰서리가 많아져도 나는 어머님께서 우리일가에게 기울이신 곡진한 사랑과 정을 잊지 못해 자주 회억하군 한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인연을 맺으신 우리 시아버님(려운형), 시누이(려연구, 려원구)들에게 돌려주신 사랑은 나와 자손들의 뇌리에 깊이깊이 새겨져있다.

70여년전에 있은 이야기이지만 그때의 일들은 지금도 기억에 삼삼하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중한 국사로 해서 참으로 드바쁜 날을 보내고계셨다. 당건설과 정권건설문제, 군건설문제, 민주개혁문제, 민족경제발전문제 등 크고작은 일들이 그이의 가르치심을 기다리고있었다.

하지만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그이께서는 평양에 온 시아버님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을 일일이 만나시고 자주독립국가건설과 민족부흥발전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바로 그 나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여러번 평양을 다녀간 우리 시아버님을 따뜻이 환대해주셨다.

그가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신상이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온갖 성의를 다해 각근히 돌봐주셨다.

김정숙어머님의 준수한 기품과 후덕한 인정미에 감복한 시아버님은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앞에서 자기는 지금껏 한다하는 녀걸들과 녀류명사들을 많이 보았지만 김정숙녀사 같은분은 어디서도 본적 없다고 심중을 터놓았다.

어머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기울이신 정과 사랑 또한 자별했다.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로 두 딸은 평양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과 한식솔처럼 살며 생활하게 됐다.

어느날 시누이들은 첫 등교를 하게 됐는데 그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부모님들이 계셨으면 더 기쁘게 해주었겠는데 변변히 준비한것이 없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마련하신 학용품일식을 각각 나누어주셨다.

그러시고는 어줍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눙쳐주시듯 흔연히 웃으시며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손님처럼 그래서는 안된다고, 나한테는 이것저것 자꾸 사달라고 해야 한다고, 앞으로 생활하면서 필요되는것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다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시며 필요할 때 쓰라고 그들의 손에 용돈도 꼭 쥐여주셨다.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데 서먹서먹할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사람을 붙여 학교까지 데려다주도록 하신 어머님이시다.

그 무렵 위대한 수령님 댁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군 했다. 장군이 되시여 고향으로 돌아온 수령님을 뵙자고 어린시절의 친우들로부터 남조선의 정객들, 항일무장투쟁때 사귀신 외국의 벗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방문객들이 쉴새없이 찾아왔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손님들을 위해 때식을 보장하시느라고 여간 바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창황중에도 어머님의 정깊은 사랑은 시누이들에게서 한시도 떨어져본적 없었다.

이렇게 다심하게 돌봐주시는 어머님의 보살피심속에 생활한 시누이들은 얼마후에는 외국류학을 가게 되였다.

그들의 성장을 위해 늘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처하신것이였다.

시누이들이 류학을 떠나는 날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공부를 잘하라고, 남들보다 두몫, 세몫 더 많이 해야 한다시며 그들의 손에 만년필도 쥐여주셨다.

부디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곱씹어 이르시고 편지도 해야 한다시며 살뜰히 보살펴주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인자한 미소와 당부에서 시누이들의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후날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항일대전에 참전했던 한 녀투사의 회상에 의하면 어머님께서 류학을 떠나는 그들과 작별하실 때 댁에 사진기가 없어 기념사진 한장 남기지 못한 아쉬움을 외우군 하셨다고 했다.

그날의 어머님모습이 우리 시누이들이 마지막으로 뵈온 모습이였다.

시아버님과 일가에게 베푸신 우리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은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웅심깊은 사랑에 의해서 그대로 이어졌다.

장군님의 고결한 의리와 두터운 보살피심속에 시아버님에게 조국통일상이 수여되고 그를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도 만들어졌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믿음과 사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사랑과 정을 다 합쳐 나의 남편(려봉구)과 시누이자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통일애국의 길을 걷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그들이 운명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애석해하시며 화환을 보내주시고 장례를 잘 치르도록 보살펴주셨다.

김정숙어머님은 애국의 려정을 걸으신 고귀한 생애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쌓으신 크나큰 업적과 더불어 오늘도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 길이 영생하신다.

로현숙

바다향기에 실려오는 어버이사랑

얼마전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화폭이 공화국에 펼쳐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마련한 물고기를 평양시민들에게 보내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신것이다.

랭동한 생신한 물고기들을 가득 싣고 줄지어 시내에로 들어오는 자동차들, 수산물매대마다 가득 넘쳐나는 물고기들, 금방 바다에서 건져낸것만 같은 선도좋은 물고기들을 한아름씩 받아안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주부들…

삽시에 온 평양시가지가 바다향기에 잠기였다.

그 물고기를 가지고 누구는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식혜를 담그고 또 누군가는 남편과 자식들이 좋아하는 튀기와 졸임을 만들겠다는 말들이 사람들에게서 오고갔다.

생각이 깊어졌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평양시민들에 대한 물고기공급과 관련한 문건에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이 안겨오고 그이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황금해의 새 력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헌신의 로고가 눈물겹게 어려왔다.

주체103(2014)년 11월 어느날 인민군대의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수산부문은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다고 하시며 수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하여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철석같은 의지의 분출이였다.

그 의지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찬바람부는 어장들을 찾고찾으시며 황금해의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현대적인 고기배들을 보내주시고 고기배의 이름을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단풍》으로 달아주신 그 손길, 수산사업소들을 찾고찾으시며 풍어기 높이 날리도록 심혈을 기울이신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만선의 배고동이 높아지고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그 나날 고기배에 오르시여 매 고기배당 해마다 1 000t은 잡아야 한다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하신 절절한 그 음성, 또 언제인가 창고와 저장실들마다에 물고기들이 가득차있는것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이라는 노래가사도 불러보시던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되여있다.

지난 11월에도 새로 건설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를 찾으시여 랭동저장고들마다 꽉 들어찬 물고기들을 보시면서 자신께서 이미전에 물고기랭동블로크들을 보고 금괴를 올려쌓은것 같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이상 적중한 비유가 없을것 같다고,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자고 투쟁하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황금해의 력사가 계속 창조되는것만큼 반갑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고 하시며 올해는 농사도 대풍인데 수산도 대풍이 들겠다고 거듭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황금해의 희한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그토록 기뻐하는것은 인민들과 군인들의 식탁에 더 많은 물고기를 놓아주기 위해서이다. 인민들의 식탁우에 사철 물고기료리들을 놓아주시려고 이해에도 잡은 그 많은 물고기들을 지체없이 수도의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비내리는 감탕길, 풍랑세찬 바다길도 웃으며 헤쳐가시는 그이의 헌신과 로고속에 《이채어경》이라는 시대어가 태여나고 《바다 만풍가》의 노래에 실려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속에서 인민의 복리는 나날이 향상되고있다.

최근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되고 경성군, 양덕군에 인민의 귀중한 재부들이 마련된데 이어 평양에 펼쳐진 화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가 이 땅우에 줄기차게 흐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헌신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진

통일의 길에 빛나는 위인의 명언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이다.》는 조국통일에 대한 자세와 립장이 곧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는 력사의 진리를 뚜렷이 밝힌 강력적지침이다.

오늘 우리 겨레는 누구나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과제를 안고있다. 외세에 의하여 조국강토가 두동강나고 민족이 갈라져 세기를 이어오며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은 끝이 없다. 이러한 분렬의 고통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할 때에만이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고 공동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조선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조선사람들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통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민족성을 말살할수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민족성원들에게 있어서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시대와 력사의 부름앞에 어떤 립장과 자세로 나서는가에 애국과 매국이 갈라지게 된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로 존엄높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것은 민족적수치이다.

통일만이 단일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이며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분렬은 민족적고통과 불행을 지속시키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 동족대결상태에서 벗어날수 없게 한다.

통일이 애국이고 민족적번영이라면 분렬은 매국이고 민족적불행이다.

애국이란 본질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것이다.

오늘날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외세에 의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실현에서 엄중한 장애로 되고있으며 이로 하여 우리 민족이 입고있는 피해는 실로 막심하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자 곧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다.

민족의 분렬을 추구하는것은 나라의 절반땅을 외세의 지배와 예속하에 내맡김으로써 민족의 자주권을 외세에게 팔아넘기고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는것으로 된다. 민족분렬로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는것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며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외세뿐이다.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은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이지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 위한 통일이 아니다. 단일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심히 유린, 롱락당하게 되는것보다 더 큰 매국은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단결위업이며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무궁번영의 근본전제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조국통일운동의 거족적성격으로부터 민족의 단합은 필수적인 문제로 나서며 민족대단결이자 우리 겨레가 바라는 통일이다.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것은 민족적단합을 파괴하고 분렬을 추구하는것이다. 결국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것은 단합과 불신,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애국은 번영을 가져오지만 매국은 망국을 초래한다. 통일이 단일민족의 고유한 모습을 되찾고 삼천리강토의 부원과 온 겨레의 지혜와 재능을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한다면 분렬은 조국강토를 영원히 두동강냄으로써 민족의 단일성을 말살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다주게 된다.

우리 나라는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자연부원으로 보나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분렬로 하여 민족의 통일적발전에 리용되여야 할 모든 인적, 물적자원이 동족대결의 도구로 허실되고있다. 이 가슴아픈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는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여야 할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궁극적목적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적발전, 부강번영을 이룩하며 전체 조선민족이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다같이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그토록 바라는것은 바로 거기에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의 생존과 발전, 존엄과 번영이 있기때문이다. 애국의 열의로 넘치는 우리 겨레의 힘과 지혜를 합치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오늘 우리 민족 누구도 통일애국을 떠나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자기 세대의 임무를 다음 대에 넘기는것은 조국과 후대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으로 된다.

매국을 증오하고 애국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사상과 정견,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자주통일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한명성

해외동포사회의 단합을 위하여

7.4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밝히신 조국통일3대원칙이 구현된 7.4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북과 남의 인민들은 물론 해외동포들도 환희의 도가니로 들끓었다.

국토의 분렬로 하여 그리운 고향산천도 제대로 오갈수 없었던 재일동포들은 이제 통일의 날이 오래지 않았다고 기뻐 어쩔줄 몰라하면서 모두가 북남공동성명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의 뜻을 표시하였다.

총련에서는 동포들의 이러한 의사를 대변하여 즉시에 북남공동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는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북남공동성명을 지지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공동으로 벌릴것을 민단에 제의하는 한편 민단동포들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폭넓은 북남협상방침과 조국통일3대원칙을 널리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결과 민단동포들속에서는 공화국의 조국통일방침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게 되였고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총련산하 동포들과 함께 손잡고 나갈 의향이 날로 높아가고있었다.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해당 부문의 일군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으시였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총련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7.4북남공동성명을 지지실현하기 위하여 민단동포들과 공동의 보조를 맞춰나가려고 하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입니다. 조상대대로 한혈통을 이어온 겨레가 둘로 갈라져 서로 반목하고 질시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타향에서 고향사람들을 만나도 친척과 같다고 하는데 어찌 이역땅에서 한겨레가 장벽을 쌓고 살수 있겠습니까. 국토분렬로 겪는 민족의 이 불행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고 더는 참을수 없다고 생각해왔기때문에 이번에 남북공동성명이 나오자 총련과 민단동포들은 서로 힘을 합쳐 통일성전에 나서려고 한것입니다.

이것은 귀중한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민족적단합을 이룩해야 한다고, 혈육의 정은 끊어질수 없는 법이라고, 민족의 뉴대는 어차피 이어지기마련이라고, 앞으로 총련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위업수행에서 민족단합운동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는 모든 해외교포조직들과 해외동포들이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이였다.

본사기자

통일애국의 려정을 더듬어 (20)

애국적민주인사와의 통일방안 협의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보조를 맞추어 남조선인민들은 북남고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해나갔다.

남조선의 《전국민족민주운동련합》 고문 문익환과 백기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북남정치협상회의에서는 외세를 몰아내는 문제와 분렬을 종식시키는 문제 그리고 북남 각계의 통일방안 등이 솔직하게 론의되여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문익환목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1989년 3월 25일 만난을 무릅쓰고 유원호, 정경모 등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문익환목사일행의 평양방문을 애국애족의 장거로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들을 통일의 사절로 뜨겁게 맞이하고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3월 27일 문익환목사를 접견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평양을 방문한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시고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주이자 통일이고 통일이자 민주라고 말해온 문익환목사의 견해를 긍정해주시면서 반파쑈반독재민주화, 반외세반침략자주화, 평화적통일 이 셋이 하나이며 우리 민족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이 세가지를 실현하는것이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과 조국통일은 반드시 련방제방식에 의하여 실현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시고 련방국가는 철저히 통일국가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을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과 함께 갈라진 가족들의 래왕, 북남사이의 철도련결, 경제, 문화 및 인도적문제도 풀어나가야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또한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거족적인 위업인것만큼 누구든지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찾아오겠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오는것을 환영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문익환목사는 이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특히 련방제통일방안이 아주 훌륭한 통일방안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월 1일 또다시 문익환목사를 만나시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금 밝혀주시였으며 그가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문익환목사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인민대중주도의 통일운동을 통하여 민족의 통일을 이룩할것을 전제로 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통일철학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공화국의 각계 인사들과도 접촉하고 대화를 진행한 문익환목사는 4월 2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관계일군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 쌍방은 상치되는 리해와 주장을 넘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을 재확인한다.

2.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렬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두개 조선》정책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하나의 민족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것을 확인한다.

3. 쌍방은 정치군사회담을 추진시켜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동시에 흩어진 가족문제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4. 쌍방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로서는 단꺼번에 할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수도 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5. 쌍방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북남대화와 평화 및 통일의 성취와는 량립될수 없다는것을 확인한다.

6. 문익환목사는 《교차승인》, 《교차접촉》에 대한 북의 거부적립장과 통일의지를 확인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측은 문익환목사가 주장하는 북남교류와 점진적련방제통일제안이 《두개 조선》을 지향하는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7. 쌍방은 우리 민족이 굳게 단결해야 할 필요성과 그 절박성을 통감하면서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며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여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공동의 념원을 표시하였다.

8. 조국평화통일위원회측은 전민련의 범민족대회소집제안을 지지하고 문익환목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 평양축전에 참가하려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지지하며 쌍방은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게 노력한다.

9. 쌍방은 이상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합의가 금후 북남사이의 다각적인 공식대화에서 협의의 기초가 될수 있고 가교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실천대책을 북남 당국과 제 정당, 단체들에 건의한다.

쌍방은 문익환목사의 평양방문이 민족통일운동사에 기록될 획기적인 쾌거로서 회담당사자들사이에 다같이 유익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쌍방의 합의의 결과는 나라의 통일을 념원하는 민족적량심을 지닌 북과 남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남조선의 량심적인 민주인사 문익환목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대화와 협상을 진행한것은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출로를 열어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하고 의로운 애국적소행이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문익환목사의 평양방문은 남조선의 여러 재야단체와 청년학생단체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문익환목사의 평양방문을 전후하여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통일대화의 기운이 급격히 높아졌다.

남조선의 로동자들은 북남로동자회담을 제기하였고 농민들은 북남농민회담과 농업교류를 주장하였으며 녀성들은 북남녀성들의 접촉을 주장해나섰다.

남조선의 《민족문학작가회의》는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위한 북과 남, 해외동포작가회의를 가질것을 제의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남조선의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 카톨릭교, 천도교, 원불교 등 6개종단 종교인대표들은 1989년 2월 28일 민족평화를 위한 종교인대회를 열고 민족화해 종교인선언을 발표하여 통일된 민족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종교인들이 합치된 노력을 기울일것을 다짐하였다.

남조선의 야당지도자들도 북남국회회담의 실현을 요구하는 한편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주석을 만나뵙고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인사들속에서는 공화국을 방문하려는 열의가 급속히 앙양되였다.

문익환목사가 사선을 헤치고 전민족대화의 문에 들어선것은 북과 남사이에 쌓여온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사상과 신앙,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단합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였으며 북남대화와 협상, 련대의 실현에 활기를 불어넣고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본사기자 김영진

평양의 봉수교회당을 방문한 남조선의 문익환목사 (왼쪽에서 네번째, 1989년)

공화국의 품에서 재능을 꽃피운 영화문학작가 (1)

공화국의 품속에서 참다운 삶을 빛내인 사람들중에는 영화문학작가 한상운도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싸우는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준 예술영화 《정찰병》의 영화문학창작으로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온 나라 청년들을 물고기떼 욱실거리는 바다로 너도나도 뛰여들게 한 랑만적인 예술영화 《갈매기호청년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고 백인준, 리종순과 더불어 조선영화문학계의 3대기둥으로 그를 솟구쳐오르게 한 예술영화 《인민교원》, 해방직후 온갖 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당창건방침을 옹호관철하는 항일혁명투사를 형상한 예술영화 《첫 파견원》, 항일혁명투사 김책을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 《초행길》(전, 후편)…

실로 그가 창작한 영화문학들은 수십년이 흐른 오늘도 인민들의 추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하다면 조선영화문학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한상운은 어떤 사람이였는가.

한상운은 이 땅우에 망국의 비운이 짙게 드리웠던 1921년 6월 21일 개성시 북안동(당시)의 부유한 상인가정에서 10남매중 셋째아들로 출생하였다.

당시 그의 가문은 개성지방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부호였다.

한상운의 할아버지는 쇠절구를 갈고갈아서 바늘을 만드는것과도 같은 모진 노력끝에 행상군으로부터 대도매상으로 된 사람이였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상운의 아버지 한종수도 서울과 평양, 부산을 제 집처럼 넘나들던 상업계의 거물이였다. 그렇지만 1910년 8월 일제에 의하여 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되자 기울어진 국운을 통탄하며 3년동안 상복을 벗지 않은 우국지사이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나라가 해방된 후 강토의 절반을 타고앉은 외세가 불도젤을 끌고와 선조들의 넋이 깃들어있는 문화유산을 마구 헐어버리려고 하자 두팔을 벌리고 막아나선 애국자였다. 그로 하여 경찰서에 잡혀가 별의별 고문을 다 당하면서도 그는 《이놈들아, 내가 제 선조들의 유물을 지키자고 나섰는데 그게 무슨 죄란 말이냐?》 하고 당당히 웨쳤다고 한다.

이러한 그였기에 1950년 6월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대에 의하여 개성이 해방되자 머슴과 소작인들을 모여놓고 토지문서를 활활 불태우고나서 《자, 이제부터 **김일성**장군님의 정치가 시작된다. 땅은 농민의것이니 토지문서를 없앤다.》라고 선포하고 스스로 재산전부를 나라에 바칠수 있었던것이다. 사실 이런 행동은 누구나 쉽게 결심을 내릴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그래서 당시 그 일은 개성은 물론 그 아근에까지 파다하게 퍼져 사람들의 화제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렸다.

그처럼 의기있고 량심적인 사람이였으나 한때는 아들에게서 《착취자》라는 오해를 받아야만 했고 그것으로 하여 부자간에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아버지가 착취자가 아니면 누가 착취자란 말이예요?》

《이녀석, 내가 착취자라면 네 어머니가 저렇듯 힘들게 일을 하겠니? 그리구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단 말이냐? 덜된 녀석같으니…》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오는 법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모순은 격화되여 마침내 한상운은 가을비가 추덕추덕 내리는 해방전의 어느 마가을날 끝내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한걸음도 옮길수 없는 세상, 왜놈들이 주인이 되여 돌아치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대로 간다면 어딜 갈수 있으며 그처럼 하고싶은 공부는 또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한상운선생

고개를 맥없이 쳐든 한상운은 가슴속에서 불타는 향학열을 끌수가 없어 하는수없이 솟을대문안으로 도로 들어섰다.

이렇게 되여 한상운은 개성제1공립보통학교시절을 거쳐 서울에서 고중에 입학하였다. 거기서 맑스의 《자본론》을 탐독하면서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깨달은 한상운은 비밀독서회조직과 일제의 《황국신민화교육정책》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조직한탓에 왜놈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였다.

한상운의 아버지는 아들의 발목에 족쇄가 채워질가봐 의학공부를 꼭 하라는 당부와 함께 일본으로 떠나보냈다.

망국노의 운명을 한탄하며 현해탄을 건너간 한상운은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와세다대학 문학과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문학의 길에 정식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였다.

와세다대학옆에는 세계적인 영화들을 상영하는 이름난 영화관이 있었는데 한상운은 약차한 금액을 요구하는 관람이였지만 하루가 멀다하게 외국영화들을 보면서 조선영화가 나아갈 앞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전쟁열기가 최대로 고조되고있었는데 조선청년들은 언제 전쟁의 대포밥이 될지 기약할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한상운은 1943년 가을 대학졸업식을 하루 앞둔채 귀국하고말았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한성일보사》(당시)기자로 취직하였다. 정의와 량심의 대변자로 당당하게 살고싶었던것이다.

그 기간에 그는 리화녀고(당시)를 졸업한 한 처녀와 알게 되여 장문의 편지를 주고받다가 가정을 이루었다. 그후에도 애국적인 문필활동을 계속해나갔다.

그러나 일제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긴 조선은 그야말로 암흑천지였다.

절컥거리는 왜놈들의 군도소리에 눌리워 한숨소리만 높던 이 땅에도 해방이라는 밝은 빛이 흘러들었다.

《나라가 해방되였다!》

《왜놈들이 망했다!》

한상운도 안해와 함께 거리로 뛰쳐나가 《조선해방만세!》를 목청껏 웨쳤었다.

끝없이 흐르는 인파에 묻혀 해방만세를 웨치는 한상운의 눈앞에는 흘러온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부유한 집에서 태여난 셋째아들, 력사책에 넋을 팔아버렸던 소년시절, 일본에서의 류학, 징병을 피하여 오른 귀국…

(이제부터 나는 새 삶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것이다!)

한상운은 동료들과 마주앉아 신문사자치위원회를 조직하고 우리 글자로 된 신문을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온 신문사가 떨쳐나 낮에 밤을 이어 작업하여 조선글자로 찍은 첫 《인민일보》가 드디여 세상에 나왔다.

《아, 이제야 진정한 우리 신문이 세상에 탄생했구나. …》

하지만 그 기쁨은 서서히 밀려드는 민족분렬의 검은구름에 의해 또다시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였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기여든 외세의 가증스러운 낯짝은 조선사람들의 머리우에 다시금 망국의 비운이 드리워졌다는것을 예고해주었던것이다.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는 남조선에서 정의와 량심의 붓대는 더는 허용되지 않았다.

한상운은 저 멀리 북녘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땅없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땅을 주고 로동자들은 공장의 주인이 되여 건국의 마치소리 높이높이 울려가는 그곳은 꿈속에서도 갈망하며 그려보던 리상향이였다.

가자, 나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북으로 가자.

한상운은 임신한 안해를 데리고 자유롭고 행복한 민주조선의 대지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였다.

이렇게 부유한 상인가정의 셋째아들이며 《한성일보사》의 기자였던 한상운은 새로운 인생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때가 1946년 7월이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고조되는 반미기운

최근 남조선에서 반미감정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지난 수십년동안 남조선을 타고앉아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가로막아온 미국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얼마전 서울에서 미국대사 해리스를 풍자조소하는 《해리스참수경연대회》가 진행된것만 봐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에 엄청난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할것을 강박하고있는 미국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기 위해 《국민주권련대》와 청년당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의 행사는 시작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주재 미국대사 해리스의 사진을 붙인 축구공을 그물에 차넣는 《고통스러운 지옥에 보내기》, 해리스의 코수염을 제거하는 《코수염뽑기》, 해리스의 사진을 묵과 두부에 올려놓고 주먹으로 내리치는 《묵사발만들기》 등을 펼쳐보이였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주둔비인상 즉각 중단하라》, 《식민지총독행세 해리스 추방하라》, 《주한미군 필요없다. 지금 당장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웨쳐 반미자주화를 요구하는 남녘의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서울주재 미국대사 해리스의 도를 넘는 내정간섭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해리스참수경연대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국대사가 풍자의 대상이 되였다고 평하였다.

미국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표시로서 온 민족의 지지와 찬사를 받아야 할 정의로운 투쟁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할것을 강박하고있다. 특히 서울주재 미국대사가 직접 나서서 남조선의 여야정치인들에게 로골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인상을 요구하였는가 하면 현 《정부》가 《종북좌파》라고 발언하는 등 남조선을 략탈의 대상, 식민지노예로밖에 여기지 않는 식민지총독행세를 하여 각계층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10월 중순 《한국대학생진보련합》소속 대학생들이 미국대사관저를 기습점거하는 사건이 일어난것만 보아도 그렇다.

이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리던 대학생 10여명은 사다리를 리용하여 미국대사관저의 담장을 넘어 청사현관앞에서 《미군지원금 5배증액 요구한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분담금인상 절대반대》, 《미국규탄》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점거롱성투쟁을 벌리였다.

이들의 의로운 투쟁은 남조선 각계층의 열렬한 지지와 옹호를 불러일으켰다.

오늘 남조선에서 급격히 고조되고있는 반미감정은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결과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남조선주민들이 현재 남조선이 부담하고있는 《방위비분담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최근 미국이 래년 《방위비분담금》을 올해의 5배이상으로 증액하라고 요구한것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동때 일본보다 남조선을 더 압박한 일때문에 대미여론이 크게 악화된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사실들은 남조선에서 반미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있는 미국때문이며 그럴수록 남조선 각계층의 반미투쟁은 더욱더 세차게 벌어지게 되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신기복

친미굴종의 역겨운 추태

최근 남조선에서 날강도적인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을 반대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을 반대하는 《국민행동단》, 《미국반대실천단》 등을 조직하고 서울전역에서 항의행동을 벌렸다.

참가자들은 《동맹이냐 날강도냐.》, 《단 한푼도 줄수 없다.》, 《굴욕협상 중단하라.》고 하면서 미국의 강도적인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규탄하였다.

민주로총은 《미국규탄대회》를 열고 《1945년 해방이후 우리 나라에서 왕노릇, 상전노릇, 주인노릇했던 미국이다. 74년간 지긋지긋하게 우리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었다. 주한미군범죄가 횡행해도 그들이 상전이였고 주인이였기때문에 처벌도 하지 못했다.

전쟁무기도 원하는대로 다 사줬다. 이젠 야금야금 받던 주둔비를 왕창 받겠다고 한다. 그들이 아직도 우리의 상전인줄 안다.》고 규탄하면서 《방위비분담금》증액을 완강히 반대해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상전의 비위를 맞추는데만 급급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강도적인 《방위비분담금》증액에 대항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스텔스전투기 《F-35A》를 비롯한 미국산 무기를 대량구입하고있는 문제를 명분으로 구매량을 더 늘이는 대신 《방위비분담금》증액폭을 낮추어보려고 비굴하게 놀아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의 여러곳에 전개된 미군기지들에 대한 거액의 오염정화비용을 저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커다란 론난거리로 되고있는 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를 정식 검토하는 등 어떻게 하나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고 민망스러운 몰골을 연출해내고있다.

참으로 나날이 드러나는 하수인의 비굴한 모습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벌려놓는짓을 보면 온통 미국상전의 밑씻개노릇뿐》,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얼마나 하찮게 보았으면 서울주재 미국대사라는자가 현 남조선당국자를 《종북좌파》라고 꺼리낌없이 비난하고 명색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마구 불러대여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박하면서 주인행세를 했겠는가 하는것이다.

그야말로 개탄과 경악을 금할수 없게 하는 치욕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민족을 욕되게 하는 이러한 굴종적인 역적행위는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상전에게 빌붙어 우리 민족의 존엄에 계속 흙칠을 해댄다면 최악의 친미사대굴욕《정권》이라는 오명과 함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과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속에서 현 당국의 행위를 두고 《굴욕적인 처사》, 《무능한 정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절대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비난과 분노를 터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사기자 한일혁

강점군의 범죄를 덮어주는 반민족적죄악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평택미군기지에서 진행된 제200차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합동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강박에 굴복하여 환경오염정화비용을 저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4개의 미군기지들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남조선당국은 지금까지 반환받기로 약속한 58개 미군기지들의 환경오염정화비용을 전부 떠안게 되였다고 한다.

사대매국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70여년전 남조선을 강점하고 세계제패실현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군사기지로 전변시키였다. 그 과정에 수많은 땅들이 온갖 독성물질들로 심히 오염되였다.

이렇게 놓고보면 미국은 저들이 수십년동안 차지하고 사용한 땅의 오염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대책을 세우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오염된 땅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남조선당국에 넘겨주고 오염되지 않은 땅을 골라 새로운 군사기지들을 건설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SOFA(미국남조선행정협정)》 제4조를 내들면서 《인간건강에 대해 알려진 림박한, 실질적,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상복구없이 기지를 넘겨주겠다고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반대이다.

남조선당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번에 반환받는 미군기지들에서는 고엽제성분인 다이옥신, 유류에 의한 오염, 중금속에 의한 오염 등 사람의 생명에 위험한 물질들이 수많이 검출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오염정화비용이 남조선돈으로 약 1 100억원정도에 이른다고 할 때 앞으로 인계받는 미군기지들에 대한 정화비용은 실로 천문학적액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사대매국적인 굴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염정화비용을 먼저 내고 그후에 부담비용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승냥이의 목구멍에 있는 고기덩어리를 꺼내겠다는것과 마찬가지로 실현불가능한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군기지들의 환경오염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한것은 그대로 남조선에 수많은 미군기지들을 전개해놓고 불모의 땅으로 만든 미국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덮어주는 반민족적범죄행위로서 미군기지내 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하나를 내놓으면 열, 백을 내라고 하는것이 바로 미국이고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타민족의 운명은 꼬물만큼도 여기지 않는것이 미국이다.

청하지도 않은 날강도가 뻐젓이 틀고앉아 주인행세를 하면서 《방위비》명목으로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강탈하는것도 성차지 않아 미군기지오염정화비용까지 남조선당국에 들씌우는것은 미국만이 감행할수 있는 오만성과 략탈성의 극치이다. 이런 미국에 당당히 요구할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부굴종만 하고있으니 남조선당국이 하수인의 하대를 받는것은 당연하다.

현실은 상전의 강박에 아부굴종만 하는 남조선당국의 사대매국정치가 청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질것은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

얼마전 남조선군부가 스텔스전투기 《F-35A》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공중급유기 등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인 신형전쟁장비들을 선전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그와 함께 남조선공군 참모총장의 주관하에 스텔스전투기 《F-35A》 전력화행사놀음까지 벌리고 실전에 배치하였으며 그 전투기를 다음해에는 13대, 2021년에 14대를 더 끌어들여 40대를 보유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군부의 이러한 망동은 조선반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며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민심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이다.

이미 북과 남은 공동선언들을 통하여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갈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하지만 남조선군부는 온한해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축소했다는 명분으로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벌려왔으며 그 무슨 《국방개혁》의 미명하에 첨단무장장비들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전쟁연습의 명칭이 바뀐다고 침략적성격과 목적, 목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것은 자명한것이며 끌어들인 첨단무장장비들이 북침전쟁에 동원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의 군사적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때에 남조선군부가 외세로부터 첨단무장장비를 끌어들이는 망동을 벌린것은 그들이 외세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동조하여 조선반도평화파괴의 돌격대로 나섰음을 스스로 인정한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간과할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남조선군부가 여전히 동족에 대한 《주적관》을 버리지 않고 동족대결을 고취하고있다는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남조선군부가 조선반도정세긴장의 책임을 공화국에 전가하면서 《안보위협》을 떠들고 첨단무장장비강화에 몰두해온것은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에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벌려놓고 그 무슨 《남북군사합의위반》과 《전방위적인 안보위협》을 떠들며 저들의 군사적도발망동과 전쟁장비강화책동을 합리화하는 모의를 벌리였다고 한다.

도적이 매를 든다고 전쟁연습과 장비구입 등으로 북남사이에 약속한 군사분야합의의 리행에 제동을 걸고 신의를 저버린자들이 뻔뻔스럽게 《위반》과 《위협》을 내흔드는것이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주적론》을 내들고 북남관계를 총탄이 오가는 전쟁접경까지 몰고간 과거 보수《정권》의 종말이 주는 교훈을 심각히 되새겨보아야 한다.

민심과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려 날뛰는 전쟁광들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김정혁

사법적폐무리들의 발악적망동

최근 남조선에서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사법적폐세력들의 움직임이 우심해지고있다.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검찰이 수사의 초점을 청와대의 부정부패의혹사건들을 들추어내는데 집중하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검찰이 초점을 집중하고있는 청와대의 부정부패의혹사건들을 본다면 지난 2018년 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사건,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의혹사건,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혜대출의혹사건 등이라고 한다.

남조선검찰은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을 사건의 배후로 지정하고 청와대를 불의에 압수수색하는 놀음까지 벌려놓았다.

반면에 《자한당》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란동사건과 이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부정부패사건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속도를 내지 않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자한당》과 야합하여 어떻게 하나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지금 사법적폐세력들은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과 손잡고 민주개혁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저들의 잔명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이를 두고 《검찰이 조사내용들을 언론에 흘리는 방법으로 현 당국의 도덕성에 상처를 내고 보수패당의 반정부공세에 빌미를 제공하고있다.》, 《당국이 민심의 요구대로 보다 완강한 검찰개혁을 들이대지 못한다면 적폐청산은 언제 가도 성사될수 없는 그림의 떡으로나 남게 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남조선검찰의 행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황연아

본성을 드러낸 깡패집단

지난 10일 남조선《국회》에서 저들이 한사코 반대하던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자한당》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최고위원회를 련이어 열고 《밀실야합예산날치기》, 《반의회주의폭거》라고 고아대는 한편 《좌파폭정》을 《결사항전》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무기한 롱성과 《장외투쟁》이라는것을 벌려놓고있다.

특히 16일에는 《국회》청사에 보수깡패무리들을 내몰아 사람들을 폭행하고 란동을 부리게 하는 망나니짓까지 서슴없이 저질러 세인을 경악케 하고있다.

이런 폭력란동이 민심의 버림과 배척을 받은것은 물론 제세상처럼 날치던 《국회》에서까지 고립외면당한 《자한당》패거리의 단말마적발악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대해 남조선여론들은 정치생둥이 황교안이 할줄 아는것이란 쩍하면 길거리에 뛰쳐나가 지랄을 부리고 삭발, 단식, 《장외투쟁》놀음을 벌리는것밖에 다른것이 없다고 비난조소하고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정치깡패집단인 《자한당》과 황교안의 포악하고 호전적이며 히스테리적인 깡패본성이 다시한번 드러난셈이다.

남조선 각계가 평하듯이 2019년 내내 남조선《국회》는 《개혁법안》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현 《정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일삼는 《자한당》의 만용으로 사상 《최악의 국회》로 오명을 떨치고있다.

지난 4월 선거제와 《검찰개혁법안》 등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되는것을 막는다며 《자한당》은 《인간띠》방탄벽만들기, 다른 당 의원감금, 회의장봉쇄 등 별의별짓을 다하다가 마지막에는 막말과 폭언, 몸싸움을 벌려놓았다.

《개혁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는 《의회쿠데타》라고 억지를 부리며 《국회》를 뛰쳐나가 《무기한 장외투쟁》을 벌려놓아 보수내부에서까지 《인기몰이용투쟁》, 《생색내기투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9월에는 법무부 장관임명문제를 놓고 《헌정유린》, 《사법유린》의 딱지를 붙이며 《투쟁하는 야당대표》의 모습을 부각한답시고 삭발놀음들을 벌려놓는가 하면 또다시 《장외투쟁》에 나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놓았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번에는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20여개의 극우보수단체 망나니들을 《국회》청사점거에로 내몰아 경찰과 《국회》소속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리고 다른 야당관계자들을 폭행하게 하여 《국회》안팎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것이다.

더구나 황교안은 확성기까지 손에 들고 고함을 지르며 폭력망동을 앞장에서 추동질하고 지휘하기까지 하였다.

강력범죄자들도 무색할 정도의 이번 《국회》폭력사태를 보면서 남조선인민들은 《자한당》이야말로 정치폭력단, 파쑈집단이며 그 두목인 황교안은 횡포무도한 악행과 폭력밖에 모르는 광적인 깡패기질을 소유한 사이비정치인, 불량인간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느끼고있다.

남조선을 자주, 민주, 민생의 불모지, 불법무법의 란무장으로 만든 주범이고 부정의의 원흉인 《자한당》이 그 무슨 《정의》와 《민주주의》를 떠드는것이야말로 민심에 대한 우롱이고 무분별한 도전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인간오작품, 정치망종, 폭력깡패들의 오물장인 《자한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 남조선사회가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후안무치의 광기를 부리며 정의와 진보에 도전해나서는 《자한당》깡패무리는 하루빨리 들어내야 한다는것이 오늘 남조선민심의 요구이다.

정리성

만평 골목대장

건축인재양성의 원종장 — 평양건축대학

앞날의 재능있는 건축가, 설계가들로 자란다

얼마전 우리는 건설의 대번영기를 떠메고나갈 건축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내고있는 평양건축대학을 찾았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대학일군은 대학의 창립과 발전행로에 아로새겨져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감명깊게 들려주었다.

전후복구건설에 많이 요구되는 건축기술자, 건설지도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체42(1953)년 10월 1일 당시 김책공업대학에서 건설공학부를 분리하여 건설대학(당시)으로 신설확장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대학을 건설부문과 도시경영, 국토관리, 환경보호부문의 인재들을 종합적으로 양성하는 전당으로 발전시켜주시고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의 설계도 맡겨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11월 몸소 대학을 찾으시여 나라의 건축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도록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손길아래 대학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우리는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앞날의 세계적인 건축가, 설계가들로 자라날 야심만만한 포부를 안고 강의에 열중하는 학생들, 가상적인 환경에서의 실험과 실지실험을 결합하여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체득해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술실기실에 들리니 학생들이 한창 그림을 그리고있었다.

안내하던 일군이 건축가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공간표상능력과 형태, 비례, 색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미술실기실천교육을 강화하고있다고 말해주었다.

대학에서는 인재중시정책을 받들고 교육과정안집행을 보다 짜고들고 수재반학생들속에서 특출한 수재를 또다시 선발하여 키우는 문제, 학생들이 유능한 교원들의 지도밑에 국가대상설계에 적극 인입되여 실천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문제 등에도 큰 힘을 넣고있었다.

하여 대학에서 외부 및 내부형성안과 기술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학생들, 전국적인 대학생경연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학생들, 대학생과학탐구상수상자들과 학위소유자대렬이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교육부문의 본보기대학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교원대학의 건축형성안과 원아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로 번듯하게 일떠선 평양초등학원의 건축형성안들도 이 대학 학생들이 맡아하였다는 것이였다.

대학의 자랑은 이뿐이 아니였다.

건축학부, 건설공학부, 건축재료공학부, 건설기계공학부를 비롯한 학부, 강좌들에서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이룩하고있었다.

안내하던 일군의 말에 의하면 최근년간에만 해도 학부, 강좌들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수백개의 과목을 전자화된 교수안으로 작성하고 전공 및 전공기초과목의 교육내용을 개선하였으며 400여종의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하였다고 한다.

또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모든 교실들의 다기능화를 실현하고 온도조종가열로, 변수위시험기를 비롯한 실험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고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교수사업에 리용하고있었다.

교육의 일원화를 실현하여 대학을 건축부문의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 꾸리고 실시간질의응답체계를 리용하여 현직설계원들에 대한 원격교육도 짜고들고있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는 교육과 과학을 밀착시켜 건축인재양성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 목표밑에 록색건축기술이 구현된 수많은 건축형성안들을 완성하였을뿐아니라 국내실정에 맞는 공법들을 창안하여 실천에 적극 도입하고있었다.

대학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탐구열, 창조열로 끓어번지는 평양건축대학과 같은 사회주의문명건설의 전초기지가 있어 창조와 건설로 더더욱 부강해질 공화국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홍범식

실천실기능력을 키워주는데 힘을 넣어

평양건축대학에서 학생들을 글뒤주가 아니라 사회주의문명건설에서 한몫단단히 할수 있는 능력있는 건축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고있다.

무엇보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공공건축설계를 비롯한 전공학과목설계들을 작성하는데 적극 인입하여 실천활동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배운 지식을 보다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우리와 만난 원성익 건축학부 부학부장은 《학부에서 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판정 및 설계지도사업요강을 작성하고 능력판정을 자주 진행하고있다.

이 과정에 학생들이 자기의 실천실기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경쟁에 너도나도 뛰여들고있다.》고 말하였다.

원성익부학부장은 학생들에게 학과설계과목에 준하여 임의의 과제를 제시하고 그들이 제출한 완성도면을 심의하여 해당한 평가를 내린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우수하게 평가된 설계도면을 그린 학생들을 평가해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 학생들의 건축설계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경쟁열의가 높아질뿐아니라 뒤떨어진 학생들이 분발하게 하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대학적으로 진행되는 과학기술축전과 교육과학성과전시회들에 교원들만이 아니라 학생들 누구나 참가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 과정에 학생들이 창작한 건축형성안들과 건축실내 및 가구설계형성안들이 많이 출품되여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5.21건축축전과 건축미학토론회들에도 학생들을 적극 참가시키고있는데 학생들이 출품한 건축설계안들과 설계정보화를 위한 프로그람들이 현실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내고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은 학생과학연구소조의 운영과정에 더욱 높아지고있다고 한다.

방과후에 운영되는 과학연구소조에서는 교원들, 연구사들의 지도밑에 설계합평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에 구현해나가기 위한 능력을 키워주고있다.

이와 함께 유능한 교원들의 지도밑에 학생들을 중요대상들의 설계에 적극 인입시킴으로써 그들의 창조적사고능력과 분석능력, 종합체계화능력을 높여주고 실천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활용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이 나날 많은 학생들속에서 삼지연시상징건물설계안을 비롯하여 우수한 형성안들과 설계안들을 내놓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양건축대학의 학생들은 사회주의문명건설의 전도가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 자각과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겠다는 야심만만한 포부를 안고 높은 탐구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인재, 실천형인재로 준비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새 교수방법을 부단히 창조하여

평양건축대학에서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는 새로운 교수방법들을 창조하는데 힘을 넣어 모든 학생들을 능력있는 건축인재들로 키워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는 대학의 김정철부학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평양건축대학에서 실천적의의가 큰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그에 대해 말해주었으면 한다.

김정철: 우리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건축형성과 설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실천형의 건축인재들로 키우는데 중심을 두고 교수방법을 개선해나가고있다.

최근년간에만 해도 가상현실기술과 증강현실기술을 비롯한 현대교육기술이 도입된 실리있고 우월한 600여건의 새 교수방법들이 창조되였다.

건축재료공학부에서 창조한 《자체실험과 발표를 통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교수방법》은 학생들이 주어지는 실험제목에 따라 실험을 위한 설계를 자체로 한 다음 조별로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천실기능력과 발표능력, 협동학습능력 등 여러가지 능력지표들을 다같이 높일수 있는 실리있는 교수방법으로 되고있다.

《립체모의와 모형제작의 결합을 통하여 학생들의 공간착상설계능력을 높여주는 교수방법》은 학생들이 착상하여 제작한 건물모형들을 가상적인 부지환경에 끌어들여 자신들이 착상한 건물모형과 주변건물과의 조화성, 호환성, 호상성이 보장되는가를 조별토론을 통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교수방법이다.

또한 《자체평가체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건축속사실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수방법》 역시 호평을 받고있다.

이밖에 《실내공간건축계획》, 《나노건축재료》, 《지리정보체계》, 《건식건설》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학과학습에 이바지하는 여러건의 교과서, 참고서들도 새로 집필하였다.

교육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킨 새 교수방법들은 학생들의 창조적사고능력과 분석능력, 종합체계화능력을 높여주고 실천속에서 산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을 쓸모있는 건축인재로 키우는데 더 잘 이바지할수 있는 우월한 새 교수방법을 더 많이 창조하는데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겠다.

건축물창조에서 큰 몫을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 평양건축대학에서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창조에서 큰 몫을 맡아하고있다.

최근년간 평양건축대학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일떠서는 기념비적건축물창조에 적극 참가하여 자랑할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

삼지연시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동평양대극장과 평양교원대학,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개건, 고암—답촌철길건설과 단천발전소건설 등에도 이곳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짙게 스며있다.

지난해만 해도 평양건축대학의 설계집단은 수백개 건설대상의 설계과제를 앞당겨 끝내고 수많은 건축형성안들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중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해주신 건축형성안만도 수백여건이 된다.

또한 삼지연시건설을 비롯하여 여러 대상건설에 대한 설계를 훌륭히 보장하여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는데 이바지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되거나 현지에 파견되여 령에네르기건축기술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와 록색건축기술 등 최신기술들이 반영된 수많은 과학연구과제들을 해결하였다.

올해에도 대학의 설계집단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설계전투를 벌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 중평온실남새농장과 양묘장건설을 비롯한 수백여개 대상의 천수백여건에 달하는 건축설계안들을 훌륭히 완성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대학의 연구집단은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 건설부문의 공법을 습식공법으로부터 건식공법으로 전환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도 맡아 해결하였다.

개천—태성호물길현지에 나간 건설공학부의 교원들과 건축과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새로운 언제보강방법을 제기하여 물길운영과 영농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고 제방의 안정성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대학의 연구집단은 평양시의 유희장들에서 유희시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삼천메기공장현장에 나간 건설공학부 수리건설공학강좌의 교원들도 물확보를 위한 과학적인 타산을 세우고 연구사업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물보장을 위한 지하수취수구조물공사의 시공지도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갈수기에도 물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평양건축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건축설계와 건설공법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건축물창조에서 비약을 일으켜갈 열의에 넘쳐 계속 분발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국제기억대가상을 받은 세계적인 지력강자들

공화국의 청년대학생들이 세계적인 두뇌경쟁마당인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28개의 메달을 쟁취하고 나라별종합순위에서 단연 제1위를 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였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무한에서 진행된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는 조선과 중국, 인디아, 몽골, 도이췰란드, 영국, 미국을 비롯한 4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선발된 우수한 남, 녀선수 500여명이 참가하였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15분 추상도형기억, 30분 2진수기억, 5분 수기억, 1시간 주패기억, 15분 얼굴 및 이름기억, 5분 력사사건기억 등 10개 세부종목에서 승부를 겨루었다.

대회에서 갱신된 세계기록은 직접 기니스세계기록집에 등록되게 된다.

이번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의 류종이 학생은 1시간 수기억, 5분 수기억, 불러주는수 듣고 기억, 30분 2진수기억종목과 성인급종합, 무차별종합 등에서 각각 1위를 함으로써 총 7개의 금메달을 받았다.

또한 김수림, 전유정학생들은 1시간 주패기억, 5분 주패기억종목 등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결과 공화국선수들은 도합 11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3개의 금컵을 수여받았으며 4개의 세부종목에서 세계기록을 갱신하였다.

이번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은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를 포함하여 총 28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나라별종합순위에서 단연 제1위를 쟁취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공화국선수들모두가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의 최고상인 국제기억대가상을 수여받았다.

본사기자

유명한 건축유산 석왕사 복원

공화국에서 중세시기의 이름난 건축유산의 하나인 석왕사를 복원하였다.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에 위치하고있는 석왕사는 고려말기인 1386년에 처음 건설되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큰 규모로 확장된 불교사원으로서 53채의 웅장한 건물들이 서로 처마를 맞대고 큰 규모의 건축군을 이루고있어 하나의 마을을 방불케 하였었다.

중심건물인 대웅전과 호지문, 조계문, 불이문, 설성동루, 룡비루 등 많은 건물들로 구성된 석왕사는 공화국의 사찰건축유산가운데서 규모와 부지면적, 부속건물의 수에 있어서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폭격으로 거의 전부가 불타고 파괴되였었다.

이번에 대웅전과 심검당, 응진전, 수군당, 룡비루, 산신각을 비롯한 8채의 건물을 력사주의적원칙에 맞게 개건 및 복원하였고 10여점의 불상과 수백점의 불구 등이 갖추어졌다.

민족유산보호부문 종업원들과 건설자들은 기발한 착상과 섬세한 기법으로 모든 건물들과 비품들을 력사주의적원칙에서 복구하고 원상대로 제작설치함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과 예술적재능을 잘 보여줄수 있게 하였다.

본사기자

설성동루

여러가지 언어사용의 유익성

언어는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는 사람들사이의 의사소통의 수단인 동시에 정보획득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자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는 오늘날 다국어를 소유하고 적극 활용하는것은 인재육성과 사회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두가지 언어를 사용하면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도 높일수 있다.

또한 여러가지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면 청소년시기에는 인식능력이 높아지고 중로년시기에는 사유능력의 감퇴속도가 떠진다.

이처럼 여러가지 언어를 학습하고 활용하는것은 대뇌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에도 좋다.

본사기자

인기를 끄는 타조가공제품들

풍치수려한 평양시교외에 평양타조목장이 자리잡고있다.

평양타조목장에서는 타조의 부산물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질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평양타조목장에서는 지난 시기 아프리카타조를 조선의 타조로 순화하는데 성공하였을뿐아니라 그 마리수를 계속 늘여 영양가높은 타조고기와 가공품들을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최근에 이곳 목장에서는 쓸모없이 버리던 타조뼈를 가지고 이쑤시개와 담배물주리, 반지를 비롯한 제품들을 만들어 내놓았는데 그에 대한 사람들의 호평이 대단하다.

타조뼈에는 강한 항균작용을 하는 햇살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런것으로 타조고기에는 유충이나 요충이 없다고 한다.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이쑤시개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 이발들사이가 넓어지거나 법랑질이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발들사이에서 부패균이 번식하게 되며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러나 타조뼈를 리용한 이쑤시개는 강한 항균작용을 하는 타조뼈의 특성으로부터 입안의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며 법랑질이 전혀 벗겨지지 않게 한다.

타조뼈를 리용한 이쑤시개를 이쏘기때 물고있으면 아픔도 제거된다고 한다.

한편 타조뼈물주리는 상아물주리에 비해볼 때 타르를 차단하거나 니코틴을 제거하는 기능이 훨씬 더 높다.

타조뼈는 대퇴부분에 상아질을 보유하고있는데 이것을 리용한 뼈물주리는 기침을 멈추거나 가래를 삭이고 신경통을 치료하는 등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곳 목장에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타조알과 뼈, 털 등으로 만든 희귀한 제품들을 기념품으로 팔아주기도 하고있다.

건강에 유익하면서도 공예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 제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류다른 관심을 받으며 큰 인기를 모으고있다.

본사기자리철민

평양타조목장에서 생산한 타조가공제품들

민속명절 동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력 11월을 동지달, 이달에 밤이 제일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을 동지날로 일러왔고 이날을 작은 설이라고 하면서 뜻깊게 쇠여왔다.

이날엔 어느 집에서나 팥죽을 쑤어먹었다.

지난날 팥죽은 여느때에도 쑤어먹군 하였으나 동지날에는 빼수 없는 음식으로 되여있었다.

이렇게 동지날에 쑤어먹는 팥죽을 《동지죽》 또는 《동지팥죽》이라고 하였다.

동지팥죽에서 오그랑이는 찹쌀가루, 찰수수가루로 만든다.

동지가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고 하였고 초순이 지나서 들면 로동지라고 하였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해에 애동지가 들면 아이들에게 좋고 로동지가 들면 로인들에게 좋다고 한다.

이것은 동지날에 작은 설이라고 하여 누구나 한살씩 더 먹는데 어린이들은 키가 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동지가 며칠간이라도 빨리 들면 좋은것으로 보았고 로인들은 늦게 들면 그만큼 오래 살게 된다고 생각한데로부터 생겨난 말이다.

또한 애동지가 드는 해에는 겨울이 춥고 로동지가 드는 해에는 춥지 않다는 말도 전해지고있다.

올해의 동지날은 12월 22일이다.

본사기자

지명과 그 유래

갈산온천

조선봉건왕조의 4대왕인 세종은 피부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으며 그 치료를 위하여 조선8도 여러곳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어느해 겨울 피부병을 치료하려고 지방에 나갔다가 한성(서울)으로 돌아오던 세종의 행차가 오늘의 판교군 구당리 넉고개를 지나다가 금방 휴식을 할 때였다.

고개마루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다가 행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던 세종은 이상하게도 눈속에 흰꽃이 피여있는것을 발견하였다. 강산이 백설로 뒤덮여있는 엄동설한에 흰꽃이 피여있는것이 하도 신기하여 그는 시중군들과 함께 흰줄기를 따라 올라가다가 뿌리를 당겨뽑게 하였다.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김이 물물 나는 뜨거운 물이 솟아나왔다.

《아! 온천이로구나. 이런데 온천이 있을줄이야.》라고 매우 기뻐한 세종은 이곳에서 약 40리 떨어진 곳에 별궁을 짓고 얼마동안 병을 치료하였다.

왕이 병치료를 하는 동안 관가에서는 사찰을 헌다, 별궁을 짓는다, 철원에서 쌀을 날라온다, 사동리 절골물을 길어온다 하면서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

날마다 계속되는 치닥거리에 신물을 느낀 백성들은 세종이 병치료를 마치고 떠나자마자 별궁을 불태워버리였다.

한편 한성으로 올라가던 길에 넉고개에서 검은 연기가 타래쳐오르는것을 본 왕은 신하를 보내여 어찌된 사연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신하로부터 별궁이 불탄다는 보고를 들은 왕은 이를 괘씸하게 여기여 구당리는 물론 이천군사람들도 과거보러 나서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당시 구당리는 이천군에 속해있었다.

이때부터 세종이 흰뿌리를 뽑았다고 하여 이 산을 갈산이라고 하고 이곳의 온천을 갈산온천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본사기자

관절염증상을 완화시키는 손운동

— 주먹쥐기

한쪽손의 손가락들을 쫙 폈다가 천천히 주먹을 쥔다.

손가락을 본래대로 천천히 편다. 이렇게 10번을 반복한 다음 손을 바꾸어 진행한다.

— 손가락관절구부리기

손가락을 곧추 폈다가 불편하지 않을만큼 구부린다. 다음 손가락을 완전히 쭉 편다.

— 엄지손가락구부리기

한손으로 다른 손 엄지손가락의 밑부분을 잡는다. 엄지손가락 밑부분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의 절반부분을 가능한껏 구부린다. 다음 본래대로 편다.

— 손가락올리기

손바닥을 책상우에 올려놓는다. 이때 모든 손가락은 서로 붙지 않게 펴야 한다. 다음 손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올려서 책상에서 뗀다.

손가락을 쳐든 상태에서 몇초동안 유지한다. 다음 천천히 내리운다.

— 《O》만들기

먼저 왼손부터 시작한다. 손가락들을 쭉 편 다음 손가락들을 안쪽으로 서로 닿을 때까지 구부린다.

이때 손가락들은 《O》모양을 해야 한다. 이 상태를 몇초동안 유지한 다음 손가락을 편다.

— 진흙장난

진흙장난은 손가락들의 이동범위를 넓히는 좋은 방법이며 동시에 손을 튼튼하게 해준다.

본사기자

성구속담의 유래

공중루각

공중에 떠있는 다락이라는 뜻으로서 현실성이 없는 헛된 공상이나 그런 계획, 구상 같은것을 이르는 말.

재산이 많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미련한데다가 고집이 세고 린색하기 그지없었다.

하루는 그가 이웃마을에 사는 부자한테 놀러가니 그 부자가 사는 집은 3층으로 되여있었는데 참으로 웅장하고 화려했다.

자기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이라 은근히 시샘이 난 부자는 그달음으로 달려와 목수를 불러 그보다 더 좋은 3층집을 지어달라고 하였다.

목수가 사람들을 모아 집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집짓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것을 본 부자는 목수를 불러 시비질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술한 자재를 사서 집을 지으면 내 재산이 거덜나지 않겠나?》

목수는 집을 지으려면 그만한 품이 들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부자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내겐 밑의 두층은 필요없고 3층만 있으면 되겠네.》

린색한 부자놈의 이 말을 듣고있던 사람들은 모두 배를 그러안고 웃음을 터뜨렸다.

공중에다 집을 짓겠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던것이다.

본사기자

사화

사륙신 유응부 (3)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나라사신을 환영하는 연회가 경회루에서 열리게 되였다. 이날 유응부는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함께 의장용큰칼인 운검을 들고 왕의 좌우에서 호위하게 되였다.

왕 세조가 명나라사신과 함께 연회장에 나타나고 뒤이어 권람, 한명회를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연회장에 들어섰다.

풍악이 울리고 시간이 갈수록 연회는 무르익어가는데 칼을 짚고 서있는 유응부의 마음은 복잡하였다. 왕과 간신들을 쳐없애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수 없었다.

유응부는 눈길을 들어 성삼문, 박팽년이 있는쪽을 바라보았으나 그들은 아무 내색도 보이지 않고있었다. 유응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조이였다. 연회는 바야흐로 끝나가는데 그는 왕의 호위를 맡은 몸인지라 자리를 뜰수가 없는 형편이였다. 그런데 때마침 왕이 잠간 자리를 떠서 내전으로 들어가자 유응부는 더는 지체하지 않고 박팽년, 성삼문 등이 있는 곳으로 빠져나가 거사할것을 말하였다.

유응부가 당장 무슨 일을 칠것 같은 기색을 보이자 성삼문과 박팽년이 그의 팔소매를 붙잡으며 만류하였다.

《유공! 외국사신이 있는 이 자리에서 거사한다는것은 좀 생각해볼 일이 아니겠소. 좀 자중하고 다음날을 기다려봅시다.》

그러자 유응부는 무섭게 부르짖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불의를 치는 일인데 어찌 한 시각인들 미루겠소. 때를 놓치고 주저하다가는 일을 그르칠수 있소.》

그러나 박팽년, 성삼문이 찬동하지 않고 끝끝내 만류하는 바람에 이날 일은 성사되지 못하고말았다.

가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뿐더러 이들에게는 돌이킬수 없는 화가 닥쳐왔다.

그들이 주저하고있는 사이에 공모자의 한사람인 김질이 뒤일이 두려워 먼저 이 사실을 세조에게 고발하고말았던것이다. 성삼문의 집에서 공신이 될 뜻을 내비치였다가 유응부가 김종서의 시조를 읊는 바람에 톡톡히 망신을 당하던 그때 벌써 딴마음을 가지고있던 김질은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겨우 죽음을 모면하였으나 집현전 다섯학사들과 유응부는 세조에게 붙잡히고말았다.

친국(왕이 직접 심문하는것)하는 날이였다. 그들은 친국을 당하는 마당에서도 누구 하나 세조앞에 꿇어엎드리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왕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을 보고 한명회, 권람을 비롯한 간신들은 펄펄 뛰며 삿대질을 하였다.

《천하에 무도한 놈들이로구나. 상감마마의 앞에 나선 신하로서 엎드려 우러르지 않으니 군신의 명분을 이토록 무시할수가 있단 말이냐!》

모두가 입이 쓰거워 말이 없는데 유응부가 큰소리로 껄껄 웃으며 부르짖었다.

《생쥐같은 놈들, 내 눈에는 상감이 보이지 않는다. 저기 룡상에 앉은 사람이야 수양대군이지 임금이냐? 어린 임금이 앉은 룡상을 허물어낸것이 그래 군신의 명분을 지킨다는 너희들의 소행이더냐?》

추상같은 호령소리에 룡상에 앉은 세조는 물론 그아래 늘어섰던 대신들도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이윽고 악에 받친 세조는 한사람, 한사람을 매로 치면서 국문하기 시작하였다. 국문이래야 더 물을 말도 없고 또 특별히 감추어야 할 비밀도 없는 이상야릇한 일종의 인격의 대결이였고 적수의 육체를 괴롭히기 위한 고문이였다.

고문이 심해지자 형장에는 피가 흐르고 살점이 튀였다.

유응부는 형틀에 매워 꿋꿋이 고문을 받으며 다문 입을 한번도 열지 않고있다가 성삼문, 박팽년을 향하여 불이 이글거리는 눈길을 보내며 웨치였다.

《이게 무슨 꼴이냐? 세상사람들의 말이 선비들과는 아무 일도 못한다더니 그게 정말이였구나. 내가 거사를 하자고 했을 때 운검을 높이 들었더라면 우리의 소원도 성취되였을것이고 오늘의 이 꼴도 당하지 않았을것이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된것은 기회를 놓친 때문이다. 죽는것은 한이 없으나 간신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한것이 한스럽다.》

유응부는 다시 입을 다물고 신음소리 한마디없이 고문을 받았다.

세조는 유응부의 기개를 꺾어보려고 쇠몽둥이를 벌겋게 달구어 몸을 지지게 하였다. 살이 타고 기름이 끓어올랐으나 유응부는 눈한번 깜빡하지 않고 견디여냈다. 형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연방 불에 달군 쇠몽둥이를 들고 다가들었다.

《이놈들아, 쇠가 덜 달았구나. 내 피보다 뜨겁지 못한것을 가지고 어찌 사나이의 기개를 꺾으려드느냐? 더 달구어오너라.》

유응부는 형리의 손에서 쇠몽둥이를 와락 빼앗아 땅바닥에 내던졌다.

유응부는 이렇게 마지막순간까지 불의를 규탄하다가 형장에 쓰러진채 몸이 굳어지고말았다. 나머지 사람들도 한강 새남터에서 피맺힌 최후를 마쳤다.

력사에서는 이 여섯사람을 《사륙신》이라고 전해온다.

유응부가 죽자 동생 응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시체를 렴습하려고 모이였다. 응신은 이제 역적의 동생이라 하여 따라 죽을 일도 기가 막혔지만 일생을 그토록 단 한번의 호강도 못해보고 오로지 나라에 한몸을 바쳐 살아오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형의 한생이 너무도 억울하여 통곡하였다.

《형님! 형님은 살아서도 가족들에게 지지리도 고생을 시키더니 죽어서도 큰 화만 남기였으니 어쩌면 운명이 그렇게도 기구합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는 시동생을 보고있던 유응부의 부인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하였다.

《불의를 바로잡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것이 한이 될뿐 떳떳이 마친 대장부의 한생이야 누가 탓하겠소. 눈물을 거두시오.》

푸르른 향오동나무에서 때아닌 락엽이 소리없이 떨어지며 장부의 기개를 떨치지도 못하고 스러져가는 유응부를 말없이 조상하고있었다.

(끝)

서인어무적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시인이였던 어무적(16세기)은 자는 잠부, 호는 랑선이다.

어무적은 봉건사회에서 제일 천한 신분에 속하였던 노비출신의 재능있는 시인이였다. 그는 김해의 관청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자신의 눈물겨운 생활체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천대받는 인민들의 심정을 대변한 시들을 많이 썼다.

고생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통치배들의 수탈행위를 폭로한 시를 쓴 죄 아닌 《죄》로 하여 어무적은 체포령을 받고 류랑생활을 하다가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작품들은 거의다 잃어지고 《류랑하는 백성의 탄식》, 《매화부》, 《길주서가 살던 옛집을 지나며》 등 몇편이 《대동시선》, 《패관잡기》, 《속동문선》, 《국조시산》 등의 문헌에 남아 전해지고있다.

그는 작품들에서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현실과 봉건통치배들의 죄행을 예리하게 폭로하였다.

어무적의 우수한 시작품들은 중세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당시 진보적시가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유모아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어느날 훈장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방법론을 가르치며 말했다.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이다. 공부도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해야 성공하느니라.》

그러자 한 아이가 되받아 말했다.

《훈장님, 그럼 우물도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파나가야 합니까?》